

고교생 50명 중 1명 '자퇴'... 총 2만5792명, 5년새 최고치

종로학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최상위권 학생들 중도 이탈자 급증 "검정고시 통한 대입 학생 많을 것"

지난해 고교생 50명 중 1명꼴로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사고·외고나 강남권 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증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 5월 교육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전국 2379개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를 분석한 결과, 총 2만5792명이 퇴학하며 학생 수 대비 2%를 기록했다.

이는 5년새 최고치다. 전국 고교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2만3812명 ▲2020년 1만4455명 ▲2021년 2만116명 ▲2022년 2만3980명이었다.

이런 흐름은 고교 유형을 가리지 않

고 지난해 대부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최상위권 학생들의 중도 이탈자 증가 추세가 일반고 등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다.

외고·국제고는 2022년 317명에서 지난해 366명으로 49명으로 15.5%p 증가했으며, 일반고와 자사고에서는 지난해 각각 1만7240명(11.1%p 증가), 378명(11.8%p 증가)이 자퇴했다. 반면, 특성화고에서만 2022년 7131명에서 지난해 7128명으로 자퇴자가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내 고교 학업중단 학생 규모를 살펴보면, 강남(2.68%), 서초(2.68%), 송파(2.17%) 등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 3구가 최고였다. 이런 추세는 학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이 수능 응시 후 정시모집을 통해 입시에 성공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업중

단 후 검정고시, 수능 정시로 대입 전략을 수정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대입에서도 검정고시를 통한 대입 전략을 수립한 학생들도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외고·국제고생들의 학업중단은 이과 선호, 의대 쏠림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수는 9256명으로 공시 이래 최다치를 경신했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18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82명이던 지난 2019년보다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임 대표이사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고교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내신 불이익에 따른 학업 중단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규모 추이 단위: %

학교알리미(교육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에 올해 5월 공시된 전국 2379개 고등학교 기준



자료: 종로학원

/뉴스시 그래픽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방법 시설물 설치

화곡1동·신사동 등 주민 불안 지역에 범죄예방 인프라 마련 등 안전도 높아

서울시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안전 진단, 교통안전 활동, 특수 지역경찰대 업무 수행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2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강서구 화곡1동·관악구 신사동·서대문구 창천동·은평구 불광2동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방법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이 사업은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지역에 범죄예방 인프라를 마련,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자경위는 서울경찰청, 자치구, 경찰서, 용역사와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방향, 적절성, 보완점 등을 검토했다. 사업 대상지별 시민 의견 청취 및 반



안심펜스. /서울시

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총 16회 실시한 뒤 대상지에 지역·환경적 특성을 담은 방법 시설물을 구축했다.

강서구에는 안심지도, 도로표지판, 반사경 등 10종의 시설물을 총 532개 설치했다. 관악구엔 안심펜스, 미러시트, 모서리거울을 포함해 8종의 시설물 총 92개를 구축했다. 서대문구에는 담장 조명, 픽업박스, 도어클로저를 비롯해 9종의 시설물을 총 132개 설치했다. 은

평구엔 안내사인, 로고젝터, 안심벤치를 포함해 10종의 시설물 총 90개를 구축했다. 자경위는 각 자치구를 통해 방법 시설물들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경위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진단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작년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회의를 총 603회 개최해 784개의 안전을 처리했다. 범죄예방 관리구역 선정 및 해제, CCTV 설치 위치, 합동 순찰 방안,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사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범죄예방 진단팀은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파손·노후화된 범죄예방 시설물을 즉시 조치했다. 자경위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운영과 범죄예방 진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자경위는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적합한 암행순찰차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운영했다. 금년 자경위는 법규 위반행위 단속 활동을 연중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경위는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지역경찰대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돕고 있다. 자경위는 한강경찰대 구조요원의 직무역량 강화 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또 지하철경찰대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근무 환경 개선과 관광경찰대의 치안 대응 홍보·교육 비용 등도 지원했다.

자경위는 특수지역(한강, 지하철)경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해서 돕고, 올해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정책' 재정 요청

"거주시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 유연성 등의 근

시교육청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간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시설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의 거주유형 중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체유형"이라며 "대부분 학생이 보호자와 주거지를 옮겨 농촌유학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거주 시설을 자치단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北이탈주민 자녀 학교적응 돕는다

국민은행·인천하나센터 등과 맞선

인천지방방법원은 법률상담, 법원 견학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맡는다. 또, 인천하나센터는 학습비 지원, 진로 및 법률상담 등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2일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천지방방법원, 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귀옥 인천지방방법원장, 이수진 국민은행 기관 영업본부장,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김민성 기자 kmmmm112@

오늘의 날씨

7월 23일 (화) 음력: 6월 18일

수도권 날씨 25~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4/29, 동두천 24/27, 가평 24/28, 파주 24/28, 서울 25/29, 양평 25/29, 인천 25/28, 수원 26/29, 용인 26/29, 평택 26/31, 백령도 23/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시, 24일부터 DDP에서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진 뉴스시
▲서울시·신한금융, 핀테크 혁신기업 6개사 선발

▲멧돼지 수렵 중 오인사격 증가... "야간엔 다경험 업무 투입"
▲시흥 슈퍼마켓 살인 16년만에 잡혀 송치



▲배터리 공장 5곳 중 1곳 법 위반... 위험물 초과에 소화설비 불량
▲'집중호우 피해' 경기·강원·충남·전남 특교세 25억 추가 지원 /사진 뉴스시